

【논문】

강희 42년 청 사신 揆叙가 그렸던 조·청 관계*

이명제**

차례

- I. 들어가며
- II. 조선 사행에 이르기까지: 가문적 배경과 한림원 입사
- III. 유교적 전통 위에 다시 새겨진 조·청 관계
- IV. 강희제의 어필 하사와 규서의 기획
- V. 나가며

국문초록

1703년(강희 42) 강희제는 규서를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한다. 규서의 사행은 사행 기록과 어필 하사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 사행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희 연간 권력의 중심에 접근한 명주 가문의 역사와 규서 본인의 정치적 성취, 그리고 삼번의 난 이후 수정된 강희제의 통치 전략을 함께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규서의 사행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규서가 유교적 전통에 매우 해박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청 관계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병자호란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구축된 조·청 관계의 역사를 유교적 수사들로 윤색하는 작업이었다. 규서의 시도는 한족 문인들과의 적극적 교류, 그리고 한림원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해 가능하였다.

규서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규서는 어필 하사라는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외교 현장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680년대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선에 어필이 하사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703년의 어필 하사가 규서의 기획이었기 때문에 옹정 연간 조선은 다시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제어: 규서(揆叙), 명주(明珠), 강희제, 『익계당시집』, 어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189).

**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들어가며

1703년(강희 42) 4월 29일,¹⁾ 숙종비 인원왕후를 책봉하기 위한 청의 칙사 규서(揆叙, Kui si)가²⁾ 일행이 북경을 출발하였다. 규서는 6월 11일 한양에 도착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6월 19일 귀국길에 올랐으며 증추절을 맞이하기 전 강희제에게 복명하였다. 이로써 규서의 사행은 마무리되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사행을 학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우선 2019년 규서가 사행 과정에서 작성한 시문을 분석하여 對조선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³⁾ 이 연구를 통해 규서가 작성한 사행 기록이 한국 학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규서의 사행 전반을 분석하기보다는 사행 기록에 집중하였으며 규서의 사행 기록만을 전론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이어서 2020년 규서가 지참한 강희제의 御書 扁額 및 法帖의 수령을 둘러싼 의례 문제가 숙종의 대명의리 및 왕권 강화를 위한 동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증명하는 논문이 제출되었다.⁴⁾ 이 연구를 통해 규서의 사행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조선의 시각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규서의 사행 배경 및 강희제의 어필 하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

이상 선행 연구를 통해 1703년 청 사신 규서의 사행 기록과 어필 하사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행 기록과 어필 하사가 가지는

1) 본고의 모든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2) 본고의 만주인 인명은 만주어를 한어로 음차한 경우에는 만주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 안에 한자 및 뫼렌도르프식 로마자를 병기한다. 만주인이라 하더라도 揆叙와 같이 한문으로 작명된 이름의 경우에는 한자음을 그대로 차용하고 () 안에 한자 및 로마자를 병기한다.

3) 이명제, 2019, 「강희 연간 淸使의 사행 기록과 조선 인식의 양상-揆叙와 阿克敦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8.

4) 김우진, 2020, 「1703년 康熙帝의 御筆을 둘러싼 조선의 정치적 파장과 숙종의 대응」, 『韓國實學研究』 40.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신 규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규서 개인의 삶에 주목한 연구는 제출된 적이 없다.⁵⁾ 중국에서 몇 가지 연구들이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문학가로서의 규서의 삶에 주목하거나,⁶⁾ 규서의 아버지 명주(明珠, mingju) 가문의 일원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⁷⁾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康熙起居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규서의 지위에 주목한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규서는 뛰어난 문헌 능력으로 한림원에 전격 발탁되었으며 起居注官, 翰林院掌院學士 등을 역임하며 강희제의 근신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규서는 만주 기인임에도 불구하고 漢學적 소양에 뛰어났으며 정무상으로도 특출난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강희제의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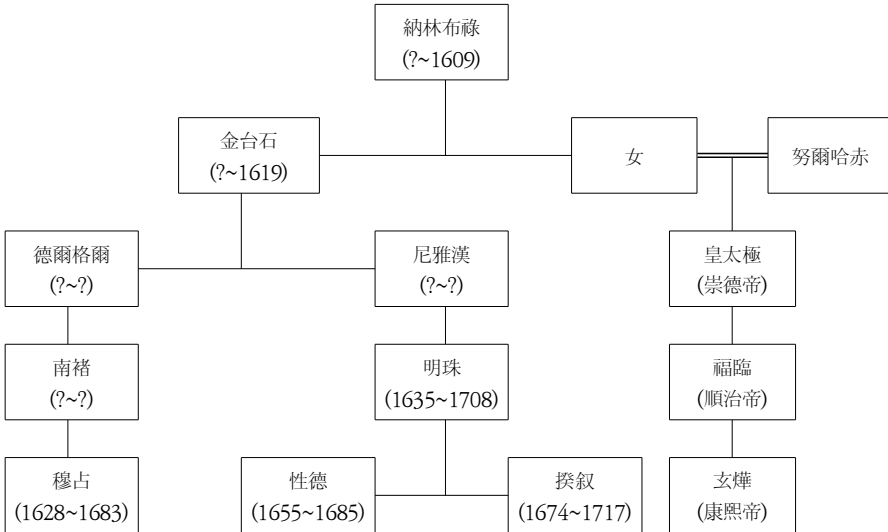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강희조 명주 가문과 규서 개인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한다면 규서에 대한 분석이 조선 사행까지 확장된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규서 개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1703년의 사행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강희 후반기 조·청 관계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규서의 가문적 배경과 한림원 학사로서의 경력이 조선 사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사행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어서 규서가 그리는 조·청 관계의 면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강희제의 어필 하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추적하여 이것이 규

-
- 5) 정생화의 연구에서 규서의 사행을 언급하며 규서가 納藍明珠의 차자임을 지적하였지만, 명주를 명나라 인물로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정생화, 2019, 『17세기 淸의 지식인 ‘조선문화’를 만나다』, 경인문화사, 53~54쪽). 이는 단순 표기 오류로 보이지만, 명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 6) 鄧偉, 1991, 「論納蘭揆叙詩」, 『承德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1(04); 嚴佳, 2013, 「順康雍時期的八旗詩人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傅湘龍, 2017, 「納蘭揆叙編年《歷朝閨雅》述考」, 『民族文學研究』 35; 劉敏, 2022, 「滿族藏書家納蘭揆叙及其謙牧堂考述」, 『河北科技圖苑』 35-4 등.
- 7) 陳煒欣, 2013, 「清康熙朝的明珠黨」,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永莉娜, 2019, 「明珠家族佐領承襲初探—以明珠二世孫瞻岱滿文奏摺為中心的考察」,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6-4.
- 8) 鈴木眞, 2021, 「康熙帝と揆叙」, 『社會文化史學』 64.

서의 기획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조선 사행에 이르기까지: 가문적 배경과 한림원 입사

규서의 성은 여허 나라씨(納蘭 혹은 納喇氏)이다. 여허 나라씨는 海西女眞 여허부를 통치하던 버일러(貝勒) 가문이었는데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이르러 부양구(布揚古, Buyanggū)와 긴타이시(金台石, Gintaisi)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이중 긴타이시 가문은 건주여진 누르하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즉 긴타이시의 누이동생이 누르하치와 혼인하였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훗날 청태종으로 등극하는 흥타이지였다. 하지만 긴타이시의 아버지 나림부루(納林布祿, Narimbulu)는 날로 강성해지는 건주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여진과 몽골 9개 부족 연합군을 결성하여 누르하치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1593년 구러성(舊老城)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건주여진과 여허부는 적대관계가 되었다.



[그림 1] 규서 가문 주요 가계도

1619년(천명 4) 여허부는 다시 한번 명·조선 등과 연합하여 건주여진에 맞섰으나 패배하였고 그후 여허부의 긴타이시와 부양구 세력은 차례대로 건주여진에 흡수되었다. 당시 긴타이시는 결국 죽임을 당했으나 그 아들 델거르[德爾格爾, Delger]와 니야한[尼雅漢, Niyahan]은 남은 가솔을 이끌고 귀부하였고, 긴타이시와 홍타이지의 혈연관계에 따라 홍타이지의 領旗인 正白旗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니야한의 아들이 바로 규서의 아버지 명주(明珠, mingju)였다.⁹⁾

홍타이지가 즉위한 이후 白旗와 黃旗 사이의 換旗가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긴타이시 가문은 正黃旗에 예속되었다. 단 긴타이시 가문의 적통은 델거르 계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누르하치는 여허부를 복속시킨 이후 여허부 속민들을 2개의 니루로 편성하여 델거르 가문이 승습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반해 방계에 속하는 니야한은 보오이 니루에 속하였다.¹⁰⁾ 니야한의 아들 명주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즉 도르곤이 죽고 順治帝가 친정에 나선 1651년(순치 8) 鑾儀衛治儀正에 임명되고, 1664년(강희 3)에는 內務府總管에 제수되는 등 황제의 측근 세력으로 발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명주는 출세 일로를 달리게 되고 三藩의 난 당시 강희제의 철변론을 적극 지지하면서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¹¹⁾

명주는 이후 弘文院學士, 刑部尙書, 都察院左都御史, 兵部尙書, 吏部尙書 등을 거쳐 1677년(강희 16) 武英殿大學士에 임명되었다. 특히 무영전대학사로 재직 당시에는 『清太祖實錄』, 『清太宗實錄』, 『大清會典』, 『大清一統志』, 『明史』 등의 국가 전적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명주의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한족 문인 및 관료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붕당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사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력과 방계라는 가계 상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명

9)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의 갈등에 대해선 유소맹,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채제센, 홍순도 역, 2015, 『누르하치-청 제국의 건설자』, 돌베개 등 참조.

10) 永莉娜, 2019, 앞의 논문, 129쪽.

11) 명주는 1667년 보오이 니루에서 벗어났고, 1671~1675년 사이 델거르 산하 2개 니루의 餘丁으로 구성된 니루를 관장하게 된다. 이후 명주 가문은 보오이 니루 출신이라는 과거를 숨기고자 시도하였다(永莉娜, 2019, 앞의 논문, 130~131쪽).

주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명주의 노력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명주는 자신의 집에 서책을 모으고¹²⁾ 한족 문인들을 빈객으로 초빙하였다. 그렇게 초빙된 한족 문인들은 가정교사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특히 뛰어난 자질을 보인 자제는 첫째 성덕(性德, Singde)이었다. 성덕은 한족 문인 徐乾學¹³⁾을 스승으로 삼았고 17세부터 太學에서 수학하였다. 성덕은 徐乾學 이외에도 다양한 문인들과 교우관계를 맺었다. 대표적으로 朱彝尊, 顧貞觀, 嚴繩孫, 吳兆騫, 陳維崧 등이 있는데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한족 문인들이었다. 성덕은 이들과 교류하며 문학적 소양을 진보시켰고 청대 詞壇에서 으뜸가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을 키운 성덕은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했다. 즉 성덕은 18세에 鄉試, 19세에 會試를 통과하였으며 22세가 되는 1676년 展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강희제 역시 어린 나이에 문학적 성취를 이룬 성덕의 재능을 아꼈고 그를 시위로 전격 발탁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성덕은 1685년 31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¹⁴⁾

명주의 둘째 아들 규서는 성덕과 형제간이었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는 데다가 성덕이 요절하였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규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명주가 실각하는 바람에 규서의 입지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규서에게도 명주와 성덕의 영향력은 확인된다. 예컨대 성덕의 지우였던 吳兆騫은 규서의 스승이 되었고, 吳兆騫의 사후에는 명주가 직접 한족 문인 查慎行을 섭외하여 규서의 스승으로 삼았다.¹⁵⁾ 또 규서는 성덕과 교유하였던 한족 문인들과의

12) 명주의 書齋는 당대에도 藏書가 많기로 유명하여 당대 유명한 장서가 중 한 명인 朱彝尊 역시 명주에게 책을 빌리러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기수, 2000, 「納蘭性德的生涯研究」, 『中國人文科學』 20, 287쪽; 嚴佳, 2013, 앞의 논문, 71쪽 참조.

13) 徐乾學은 江南崑山人 출신으로 1670년(강희 9) 진사가 되어 명주 등과 함께 국가 전적 편찬사업에 참여하였다. 서건학은 명주와 봉당을 형성한 대표적인 한족 관료였지만 후에 명주와 사이가 벌어져 1688년 명주의 실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본인도 이듬해 탄핵을 받고 정계에서 은퇴한다. 『清史稿』 권271, 列傳58, 徐乾學.

14) 성덕의 생애와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清史稿』 권316, 列傳271, 性德 및 유기수, 2000, 앞의 논문; 이지희, 2001, 「納蘭性德愛情詞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嚴佳, 2013, 앞의 논문, 71~75쪽 등 참조.

관계를 계승하였고,¹⁶⁾ 그 외에도 王揆, 王頊齡, 陳元龍, 徐倬, 孫致彌, 唐孫華, 超揆 등과 친교를 맺었다.¹⁷⁾

규서는 성덕이 관할하는 니루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앞서 강희 초반 명주가 하나의 니루를 관할하게 되었고, 명주 관할 니루의 餘丁으로 또 하나의 니루를 편성하게 되자 명주의 장남인 성덕이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덕이 세상을 일찍 떠나자 규서는 12살의 나이로 니루를 계승하였다.¹⁸⁾

1693년(강희 32), 강희제는 규서의 재능을 아껴 자신을 호종케 하였고, 이듬해 3등시위로 발탁하였다. 1695년 규서는 2등시위로 다시 승진하였고, 이듬해 翰林院侍讀學士에 전격 발탁되었다. 이후로도 규서의 승진은 계속되어 1702년 정3품 翰林院掌院學士에 올랐으니 이때 그의 나이의 29세에 불과하였다.¹⁹⁾

규서의 관력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림원으로서의 입사이다. 한림원은 文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위직을 역임하고 있던 규서가 한림원에 등용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계기로 통치체제에 변화를 꾀하였는데, 1670년대 후반 한족 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博學鴻詞科가 그 첫 걸음이었다. 박학홍사과로 선발된 50명의 한족 문인들은 한림원에 등용되어 명의 문화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²⁰⁾

강희제는 과거 출신 만주 기인의 문한 능력도 주목하였다. 기인의 경우 응시자

- 15) 『敬業堂詩集』 권8, 人海集 小序, “故人吳漢槎歿後 有以不肖姓名達於明相國左右者 遂延置門館 令子若孫受業焉”; 『揆叙墓志銘』, “年八歲 受業於吳江孝廉吳兆騫 讀四子經書 一如夙習 既背誦 終身不忘
- 16) 『揆叙墓志銘』, “時容若與朱竹垞彝尊 姜西溟宸英 嚴耦漁繩孫 顧梁汾貞觀時宴集於花間草堂 輒召公往 諸公咸以異才目之”
- 17) 『揆叙墓志銘』, “賜進士出身光祿大夫經筵講官文淵閣大學士兼禮部尚書加七級太倉年家眷弟王頊齡首拜撰 賜進士出身光祿大夫經筵講官工部尚書加二級華亭年家眷弟王頊齡頓首拜書丹 賜進士及第光祿大夫巡撫廣西等處地方提督軍務兵部左侍郎兼都察院右副都御史加二級海寧年家眷弟陳元龍頓首拜篆蓋 … 余則得之吾友翰林孫松坪至彌 查夏仲慎行 吏部唐實君孫華為最悉 蓋諸君與公同硯席 久而益信 故能真知而樂道之 余得從諸君子之緒言而為之志且銘也” 및 鄧偉, 1991, 앞의 논문, 84~86쪽.
- 18) 永莉娜, 2019, 앞의 논문, 132쪽; 鈴木眞, 2021, 앞의 논문, 2쪽.
- 19) 규서가 한림원장원학사에 임명되었을 때 “규서의 행정적 능력이나 문장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나이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揆叙墓志銘』, “十二月 擢拜翰林院掌院學士兼禮部侍郎 入謝時朝朝嘖嘖歎賞 謂其官其文可及 其年不可及 是時公年止二十九也”
- 20) 이명제, 2021,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4~275쪽.

도 적고 합격 정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격이 쉬웠다. 하지만 그런 만큼 기인 출신 진사들의 문한 능력은 한인에 비해 열등하였는데, 강희제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며 분발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인들의 한학적 소양은 강희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1696년 규서의 문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한림원에 전격 발탁하는 결정을 내린다.²¹⁾

한편, 한림원 학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가 전적을 편찬하는 것이었고 『明史』와 『大清一統志』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명사』와 『대청일통지』에는 조선과 관련한 항목이 존재하였고 이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과 정보들이 한림원에 집적되기 시작하였다.²²⁾ 1678년 조선 사행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강희제는 한족 문인 孫致彌를 採詩官에 임명하여 조선 사행에 동행시킨 것이다. 손치미는 수행원의 신분으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족 문인이 사신단에 선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손치미는 조선에서 權輶·朴閔·許筠·白光勳·許蘭雪軒·鄭夢周 등의 문집과 『正氣歌』·『桂苑筆耕』·『史略』·『古文眞寶』 등의 서적을 구하여 돌아갔다.²³⁾ 孫致彌는 자신이 구해온 조선의 시문을 엮어 『朝鮮採風錄』을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한림원 학사들의 모임인 雅會를 통해 공유되었다. 이 모임의 주요 참석자로는 당대의 저명한 한족 문인 王士禎, 尤侗, 朱彝尊, 陳維崧 등을 꼽을 수 있다.²⁴⁾

규서는 한림원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한족 문인 다수와 교류하였고, 손치미와도 친분을 맺고 있었다.²⁵⁾ 이미 한족 문인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규서는 한림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17세기

21) 鈴木眞, 2021, 앞의 논문, 3~5쪽.

22) 정생화, 2019, 앞의 책, 21~26쪽.

23) 『通文館志』 권9, 肅宗大王 4년 戊午.

24) 孫致彌의 조선 사행과 雅會에 대해서는 정생화, 2019, 앞의 책, 41~56쪽 참조.

25) 『益戒堂詩集』 권1, 序(孫致彌), “然受知於公 十有餘年”. 孫致彌가 서문을 남긴 것이 1704년이므로 규서와 적어도 1690년대 초부터 교류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서가 한림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손치미 등의 한족 문인들과 교류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후반 한림원에 집적된 조선에 대한 정보는 규서에게도 전달되었다.²⁶⁾ 마침내 1703년 인원왕후를 책봉하기 위해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게 되자 규서는 出使를 자원하게 되었다.²⁷⁾

III. 유교적 전통 위에 다시 새겨진 조·청 관계

규서는 조선 사행의 과정에서 시문을 창작하고 이를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청대 사행 기록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다. 규서 이전에도 조선 경내에서 시문을 남긴 사례가 확인되는데 1662년 조선을 방문한 부사가 기자묘에서 시문을 남긴 것이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淸使의 행위에 놀라며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당시 공유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첫째, 관직은 郎中, 둘째, 이름의 첫 글자는 明, 셋째, 을해년생(1635), 넷째, 팔왕(아지거[阿濟格, Ajigel])의 사위라는 사실이었다.²⁸⁾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물은 바로 규서의 아버지 명주였다. 또 명주에 대한 대화에서 鄭太和는 “만주인이지만 중국의 제도에 익숙하다”라 하였고, 현종 역시 “기자묘와 비석을 찾아가 살펴보았다고 하는 걸로 보아 옛 일을 잘 아는 듯 하다”라는 평을 남겼다. 다만 명주가 남긴 시문에 대해선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평하였다.²⁹⁾

이를 통해 보건대 규서의 조선 사행은 41년 전 아버지 명주의 행적을 재현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아버지 명주는 단순히 조선 경내에서 시문을 지었던

26) 규서의 사행 시문 내에서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재, 2019, 앞의 논문, 73~76쪽.

27) 『肅宗實錄』 권38, 숙종 29년 6월 11일 을유.

28) 『同文彙考』 補編 권9, 詔勅錄, 康熙 1년; 『承政院日記』 177책, 현종 3년 12월 4일 계묘.

29) 『承政院日記』 177책, 현종 3년 12월 4일 계묘, “【缺】曰 副勅能文云矣 【缺】 上曰 胡人云耶 爲人似是 輕躁者也 太和曰 胡人也 而【缺】漢制 年則乙亥生 八王之女媁云矣 上曰 予聞其年三十二云 而上來時 尋見箕子廟碑 頗能【缺】古事 太和曰 聞其所作詩 其詩曰 設令見豐樂 在險不可求 聞狐羝羊戰 小穴觸破頭 其語意 則固未可曉也”

만면 규서는 자신의 시문을 문집에 수록하여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명주와 규서 부자가 이렇듯 사행문학을 복원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현종과 정태화의 평가와 같이 유교적 전통에 익숙했기 때문이다.³⁰⁾

규서의 사행 기록은 자신의 문집인 『益戒堂詩集』에 남아있다. 규서는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스스로 편집하여 『익계당시집』 8권으로 정리하였다. 규서의 사후 그의 아들 영수(永壽, Yungseo)가 남겨진 원고를 수습하여 後集 8권으로 편집하여 謙牧堂에서 간행하였다. 『익계당시집』은 시간 순으로 편차되어 있는데 규서가 직접 편집한 원집은 1692년부터 1703년까지, 영수가 편집한 후집은 1704년부터 1715년까지이다. 원집에는 徐倬·孫致彌의 서문과 自序가 수록되어 있다. 徐倬의 서문에는 작성 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孫致彌의 서문과 자서에는 각기 康熙甲申(1704)과 癸未(1703)라고 저술 시기가 밝혀져 있다. 후집에는 勵廷儀·淑寧의 서문과 영수의 발문이 남아있다. 淑寧의 서문에 雍正甲辰(1724)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규서 사후에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여정의의 서문을 살펴보면 “갑신년(1704)에서 시작하여 을미년(1715)까지로, 揆叙공이 죽은 후 아들 산질대신 永壽가 편집하였다. 원집과 합쳐 판각하고 간행하고자 하였는데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³¹⁾라 하여 간행 경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영수의 발문에는 규서가 계미년 이후에 지은 시들을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주어 간행하게 하였음을 밝혀두고 있다.³²⁾

30) 명주가 시문을 남긴 장소가 기자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지점이다. 箕子是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명대에는 외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소재였다. 하지만 17세기 조선과 청의 외교 현장에서 명주의 사례를 제외하면 청 사신의 기자묘 방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주의 기자묘 방문은 이례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규서 역시 기자묘에서 「調箕子墓」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고, 그 외에도 여러 시문에서 기자를 조·청 관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명주나 규서가 다른 사신들과 달리 기자의 상징성을 간취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족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청 외교에서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명제, 2023, 「조선 후기 기자의 위상 변화와 조·청 외교에서의 활용 양상」, 『국학연구』 51 참조.

31) 『益戒堂詩集』 後集 권1, “後集起甲申訖乙未 公歿後 嗣子散秩大臣壽編輯 將合刻行世 而屬序於余”

32) 『益戒堂詩集』 後集 권8, 跋. 『益戒堂詩集』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嚴佳, 2013, 앞의 논문, 75; 이명제, 2019, 앞의 논문, 70~71쪽.

규서가 조선 사행 당시 남긴 시문은 원집 권8에 수록되어 있다. 규서는 조선 사행 당시 남긴 시문을 별도의 편목으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사행과 관련한 부분은 내용을 통해 구분하여야 한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놓았지만 조선 사행의 시작 지점은 명확하다. 즉 「奉使朝鮮初出都」라는 제목의 시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강희제에게 복명한 시점을 종결로 잡는다면 「間道赴行在作」 시문으로 보아야 하겠지만³³⁾ 규서가 그 뒤에도 사신행과 사행에서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시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규서가 사신행과 시문을 주고받은 「次和他山夫子見示之作」까지를 조선 사행 관련 시문으로 파악하였다.

규서의 조선 사행 관련 시문은 총 56제 62수, 조선 경내에서 지은 것은 27제 30수이다. 규서의 시문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청대 문인의 조선 사행 기록 중에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규서 이전 조선을 방문하였던 청대 관료가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이유로는 우선 한문 구사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조선에 파견되는 사신은 旗人에 한정되는데,³⁴⁾ 입관 이전 세대들은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사행문학의 전통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게다가 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조선 원접사들이 창화외교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행문학의 전통은 더욱 회복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1703년 규서에 이르러서야 사행문학이 일부 복원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서의 사행 기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조선의 역사에 매우 해박하다는 점이다.³⁵⁾ 규서는 조선을 부여, 삼한, 진한, 신라, 고려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기자 東來는 물론 단군의 존재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사실이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世系 및 우왕의 계보에 대한 논란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규서가 사행 이전에 조선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을 획득했음을 보여주

33) 「間道赴行在作」은 두 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수는 강희제를 하루바삐 찾아뵙길 바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수는 평온한 강희제의 용안을 뵈어 마음이 놓인다는 내용이다.

34) 구법진, 2008,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인문논총』 59.

35) 규서 사행 기록의 주요 내용 및 특이사항은 본문 뒤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는 대목이다. 특히 단군을 언급한 사실은 조선에 대한 규서의 선행지식이 중국에 통용되던 수준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7세기 말 『明史』 조선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조선 관련 정보들이 규서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규서가 조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다양한 국명을 사용한 것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에서 한반도 국가를 지칭할 때 국명을 혼용하는 사례는 唐代부터 확인된다. 예컨대, 고구려와 동일한 뜻으로 조선, 삼한, 진한, 부여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³⁷⁾ 흥미로운 것은 규서 역시 삼한과 진한, 부여 등을 동일하게 조선의 국명으로 혼용하면서도 마한이나 변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규서가 당대 이래 수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지적 전통을 계승한 규서는 조·청 관계를 유교적 수사로 분식하고자 시도하였다.

공손히 福陵과 昭陵에 배알하고 짓다

위대한 우리 태조께서 하늘 문을 열고 王迹을 일으키셨으며
태종께서 그 뜻을 공경히 이어받음에 道가 끊이지 않았다네.
武功으로는 禍亂을 극복하시고 文治로는 역사를 빛냈다네.³⁸⁾

공손히 孝陵에 배알하다.

잠시 사신 행차를 멈추고 순치제의 무덤을 배알하니
산천에 왕의 기운이 모여 있고 구름 가운데도 영광이 비친다네.
가만히 임금의 성대한 뜻과 길이 펼쳐지는 은택을 떠올리니

36) 『明史』와 관련한 내용은 이명제, 2019, 앞의 논문, 74쪽 참조.

37) 최진열,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の 正體性—唐代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한반도를 '삼한'으로 지칭하는 사례는 명대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데(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5쪽), 규서의 사례를 포함한다면 청대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38) 『益戒堂詩集』 권8, 「恭謁福陵昭陵作」, “恭惟我太祖 開天肇王迹 繼述得太宗 敬承道無斁 武功載禍亂 文治光簡策”

황업의 기를 천하의 성군을 따르고, 지극한 다스림 요순에 필적하는 도다.³⁹⁾

다음의 두 시는 각각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무덤인 복릉과 소릉 및 순치제의 무덤인 효릉을 배알하고 남긴 것이다. 규서는 각각의 시문을 통해 누르하치로부터 순치제에 이르는 군주들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팔기의 강력한 무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문치가 강조되었다. 또한 순치제는 중국의 성군 요순에 필적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규서의 시문에서 청의 황제들은 중국의 성인 군주와 닮아 있었고, 청 제국은 사냥과 전쟁이 아닌 문치와 예법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해관을 나서며

천하가 전란을 겪었지만 팔방의 풍속 오래도록 같아질 것이니

烽燧는 천년 간 멈추고, 수레와 문자 만국에 통한다네.

깃발 세우고 장성을 지나 조서 받들고 주몽에게 문안하니

함께 태평한 시대를 누리며 聖主의 공을 잊지 말지어다.⁴⁰⁾

高臺堡에서 十三山으로 가는 길목에서 짓다

앞선 황제의 격전지, 사신의 수레를 몰며 살펴보니

들판은 광활한데 말들은 모두 돌아갔고, 사람들은 한가로이 활을 쏘는구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무덤만이 남고 전쟁의 자취들은 사라졌네.

大業이 열린 세상을 생각하니 驛路의 고단함도 모두 잊혀지는도다.⁴¹⁾

39) 『益戒堂詩集』 권8, 「恭謁孝陵十二韻」, “暫弭輜軒節 來瞻劍寫藏 山川鍾王氣 雲物映榮光 緬想皇圖盛 恭惟祖澤長 開基從負辰 致治垂裳”

40) 『益戒堂詩集』 권8, 「出山海關」, “九邊曾轉戰 八表久同風 烽燧千年息 車書萬國通 擁旄經紫塞 捧詔問 朱蒙 共樂昇平世 難忘聖主功”

41) 『益戒堂詩集』 권8, 「自高臺堡抵十三山道中作」, “先皇龍戰地 歷歷驗星輶 野曠多歸馬 人閒自射雕 鯨 鯢京觀在 鶯鶯陣雲消 緬想開天業 都忘驛路遙”

봉황성에서

세상이 새로 열려 눈발이 비단처럼 펼쳐졌고
 성벽과 진지에는 이끼만 가득 끼어 후대에 전달되네.
 모두 함께 聖朝의 성대한 위엄과 은혜에 기뻐하라.
 이역만리까지 戰火의 연기 멈추었다네.⁴²⁾

다음의 시들은 규서가 명말청초시기 戰亂地를 지나면서 남긴 감상들이다. 규서는 전란의 종식과 태평성대의 시작을 선포하며 청조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도 청 제국을 지탱하는 것은 사냥과 전쟁이 아닌 수레와 문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이 청에 臣屬해야 하는 이유는 병자호란의 패배가 아니라 전란을 멈추고 태평성대를 열어젖힌 聖朝의 위엄과 은혜 때문이었다.

규서의 인식의 전환은 ‘大清皇帝功德碑’, 즉 삼전도비를 방문하면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太宗文皇帝功德碑에 공경히 賦하다

아 성대한 우리 태종께서 문왕과 무왕의 도를 겸비하시어
 스스로 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말 달려 견고한 성벽을 뚫어내셨네.
 파죽지세로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더니 양식이 떨어져 성은 무너지려 하고
 일부의 군사가 강화도를 함락시킴에 온 궁궐이 안절부절못하였네.

...

조선의 군신이 모두 감격에 겨워 울고 삼전도에서 복종을 다짐함에
 크나큰 은혜로 돌려보내니 국사를 회복하였다네.

...

東人들도 황업의 기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황제께서 그 뜻을 계승하시어 마침내 일통이 이루어졌도다.⁴³⁾

42) 『益戒堂詩集』 권8, 「鳳凰城」, “田疇繡錯因時闢 壁壘苔荒異代傳 共喜聖朝威惠溥 遐荒萬里靜狼煙”

43) 『益戒堂詩集』 권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於鑠我太宗 文武合張弛 自將十萬兵 長驅罕堅壘 破竹壓南漢 糧盡城將圯 偏師戡江都 闔宮可係累 … 君臣咸感泣 歸命三田溪 弘恩釋之歸 國事得復理 社稷亡再存 宗祧絕再祀 自古弔伐師 功德孰可擬 … 東人亦有言 丕基實肇此 繼緒得吾皇 一統果定矣”

규서는 조·청 관계의 서사를 '태종의 정벌 → 조선의 위기 → 태종의 은총 → 조선의 감복 → 조선의 자발적 복종 → 청 중심 국제질서의 완성'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청 태종의 무력적 정벌의 명분은 '문왕과 무왕의 도'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규서는 시의 후반부에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강조하였다. 양국 관계를 지탱하던 전쟁에 대한 기억 대신 자발적인 조선의 복종이라는 서사를 덧씌워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의주에서 강을 건너 돌아갈 때 조선인의 말을 술회하다.

조선 사람의 말 반겨 들어보니 성덕이 함께 덮어주는 은혜에 감사한다네.

휘황찬란한 어필을 반포하니 바다 모퉁이까지 성을 입었다네.

...

기뻐하는 소리 하늘에 닿고 찬양하는 말은 요 임금에 대한 축원을 닮았네.

몇 해 전 수재를 겪어 삼농의 곡식이 익지 않았는데

황제께서 東人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어 곡식 이만 곡을 하사하시니

이에 힘써 농사를 지어 마침내 다행히 배불리 먹게 되었다네.

...

먼 곳에서도 소의 뿔을 두드리고 온 천하가 함께 복을 치면서

손을 모으고 우리의 황제가 되어 영원토록 보전하길 원한다네.⁴⁴⁾

'皇朝의 은혜와 조선의 복종'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전형은 조선 경내에서 지은 마지막 시문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규서는 청조의 성덕을 찬양하는 조선인의 자발적인 복종을 묘사하였다. 조선에 하사된 어필은 황조의 은혜가 제후국까지 미치는 상징이 되었고, 을병대기근 당시 강희제가 곡식 2만 곡을 조선에 지원한 사실은 양국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강희제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축원은 요 임금에 대한 그것과 동일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44) 『益戒堂詩集』 권8, 「歸渡義州江述朝鮮人語」, “欣聞東人語 聖德同覆育 煌煌御筆頒 異數被海曲 … 曩年罹水災 三農穀不熟 帝心眷東顧 賜粟二萬斛 從茲勉耕耘 遂幸飽饘粥 … 遐陬頻叩角 率土咸鼓復 拜手願吾皇 萬年膺寶錄”

IV. 강희제의 어필 하사와 규서의 기획

인원왕후 김씨를 책봉하기 위한 청 사신의 인선은 1703년 2월 21일 결정되었다.⁴⁵⁾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사행길에 오른 것은 4월 29일로 약 두 달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⁶⁾ 이처럼 규서의 사행이 늦어진 것은 강희제의 南巡과 五旬을 기념하여 천하에 赦免을 반포한 조서를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규서 일행의 사행이 출발하기 11일 전인 4월 18일 황제의 조서를 지참한 詔使가 한발 앞서 조선으로 향했던 것이다.⁴⁷⁾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규서는 왕비의 고명 칙서 이외에도 강희제의 어필을 지참하였다. 규서는 자신이 직접 조선사행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문을 올려 어필의 반사를 청하였다고 밝혔다.⁴⁸⁾ 규서가 올렸다는 표문은 현재 李玄逸의 『葛菴集』 권21에 수록되어 있다.

淸의 翰林院庶吉士 명규서⁴⁹⁾가 표를 올려 御筆을 外藩에 보이는 일을 공손히 청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皇上께서는 文德이 널리 퍼지고 武功이 밝게 빛나십니다. 심지어 萬幾의 여가에는 翰墨을 가까이하시어 온축되어 있는 道德을 詩文으로 드러내셨으니, 글씨는 天工의 교묘한 솜씨보다 낮고 저술은 千聖의 정미함을 계승 하셨습니다. 능히 書法을 集大成하였고 文章은 神品の 경지에 이르시니, 千古에 뛰어나고 萬邦에 모범이 되십니다. 大小 臣工들 중에 어필을 내려 받은 자들은 서로 경하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아래로는 儒生과 布衣에 이르기까지 요행히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 되면 또한 반드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하물며 朝鮮은 오래도록 聲教를 준수하여 왔으니, 그 간절한 바람은 필시 타국의 배나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특별히 큰 은혜를 베풀어 御筆를 頒賜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받들고 나아가 조선 국왕 이하 신료들로 하여금 우리 황상의 하늘이 내신

45) 『淸聖祖實錄』 권211, 康熙 42년 2월 21일 병신.

46) 『同文彙考』 補編 권9, 詔勅錄, 康熙 42년.

47) 김우진, 2020, 앞의 논문, 516쪽.

48) 『肅宗實錄』 卷38, 숙종 29년 6월 11일 을유.

49) 조선에서는 규서가 명주(明珠)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성을 명으로 오해하였다.

재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청 황제가 이에 직접 ‘藩封世守柔遠格恭’이라는 여덟 글자를 大字로 써서 보내 주었다. 【이 말은 또한 분명하지 못한 곳이 많으니 말을 배우는 어린 아이가 어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다.】⁵⁰⁾

해당 표문이 경상북도 寧海 지역에서 사실상 금고 상태에 놓여있던 이현일에 게 전달된 경위는 분명치 않다. 더구나 표문의 존재가 이현일의 문집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⁵¹⁾ 하지만 표문 중에 ‘萬幾之暇에 翰墨을 가까이 한다’는 내용은 평소 강희제가 즐겨 하던 말로,⁵²⁾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이현일이 어느 정도의 편집은 가했을지언정 완전한 위작은 아니라 추정된다.⁵³⁾

이현일은 규서의 표문 말미에 “이 말은 또한 분명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비판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표문보다는 강희제 어서 문구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즉, 봉토를 대대로 지키라는 의미의 ‘藩封世守’ 네 글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먼 곳의 사람들을 회유함에 삼가라는 의미의 ‘柔遠格恭’ 네 글자는 제후국 군주에게 하사할 글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현일은 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청 황제가 시문이나 서법과 같은 末技에 종사하고 있으니 오랑캐의 운수가 장차 궁벽

50) 『葛菴集』 권21, 跋, 書北使明揆敘請頒示清皇筆蹟後, “清國翰林院庶吉士明揆敘恭請宸翰昭示外藩事竊惟我皇上文德覃敷 武功赫濯 乃至萬幾之暇 時親翰墨 道德之蘊 發爲詩文 揮灑奪天工之巧妙 著述傳千聖之精微 能集書法之大成 擅文章之神品 超邁千古 式憲萬邦 大小臣工得拜御筆之賜者 莫不交相慶幸 下至儒生韋布 幸獲瞻仰 亦必權欣抃舞 況朝鮮久遵聲教 其仰望之切 當必有倍于他國 伏乞皇上特沛洪恩 頒賜御書 使臣齋奉前去 令該國王以下共權我皇上多能天縱 出尋常萬萬 清皇於是手書藩封世守柔遠格恭八大字以送之 【此語亦多未盡 有學語小兒不成言句之態】”

51) 규서가 표문을 올린 시기는 아마도 사신 인선이 마무리 된 2월 21일부터 사신 출발 이전인 4월 29일 사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기 청실록이나 『康熙起居注』에서 표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에서 왕비 책봉 주문을 전달한 1월초로 시기를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규서가 스스로 표문을 올렸다고 밝혔기 때문에 표문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52) 『淸聖祖實錄』 권41, 강희 12년 3월 4일 갑술; 권208, 강희 41년 5월 25일 병오; 권219, 강희 44년 3월 28일 임술 등.

53) ‘萬幾之暇’라는 언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다. 즉, 강희 초반 講官들은 서예가 ‘帝王之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강희제는 이에 대해 ‘萬幾之暇’나 ‘聽政之暇’에 힘쓸 뿐이라고 대응하였다(成積春, 2006, 「書法背後的統治藝術-康熙書法的政治涵義詮釋」, 『內蒙古大學藝術學院學報』 3-1, 47쪽). 이현일이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질 징조라는 기대 섞인 희망을 표출하였다. 실제로 강희제는 이현일의 지적과 같이 지속적으로 서법을 연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 어서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극히 정교한 정치적 행위였다.⁵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강희제가 어서를 통해 자신을 유교적 군주로 포장하여 만한관계를 개선하고자 도모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서를 하사하는 행위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황제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창출하였다. 특히 강희제가 서법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1673년(강희 12) 이후로,⁵⁵⁾ 삼변의 난으로 촉발된 한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강희제의 어서 정치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강희제는 1682년과 이듬해 각각 琉球와 安南에 어필을 하사하며 조공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한다.⁵⁶⁾ 따라서 1703년 조선에 대한 어필 하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어필 하사는 유구·안남의 사례와는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확인된다. 예컨대 유구·안남에 대한 어필 하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어필 하사의 시기가 삼변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던 1680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다. 또 안남의 경우 어필 하사의 이유로 오삼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 삼변의 난과 어필 하사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⁵⁷⁾ 다음으로 유구와 안남 모두 국왕 책봉의 과정에서 어필이 하사되었다.

54) 강희제의 서법과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成積春, 2006, 앞의 논문; 張萬興, 2012, 「從起居注看康熙帝頒賜御書的政治功用」, 『歷史檔案』 2012-2; 常建華, 2017, 「共賞與建構: 康熙帝的御賜書法活動」, 『文史哲』 361; 2019, 「康熙南巡中的書法活動」, 『學術界』 257; 2020, 「認同與建構: 西安碑林中的康熙書法」, 『江海學刊』 2020-06; 2021, 「康熙帝書法研究綜述」, 『瀋陽故宮學刊』 24.

55) 成積春, 2006, 앞의 논문, 47~48쪽.

56) 張萬興, 2012, 앞의 논문, 86쪽; 常建華, 2017, 앞의 논문, 78~79쪽.

57) 『(雍正)廣西通志』 권96, 諸蠻, 安南附紀, “二十二年六月 欽差侍讀鄔黑 郎中周燦 弔祭維綻 又遣侍讀明圖等 冊封維正為安南國王 上以維正不從吳逆 御書忠孝守邦四字賜之” 유구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삼변의 난 시기에 누차 방물을 바치며 청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清史稿』 권526, 列傳313, 屬國1, 琉球, “二十年 直遣陪臣毛見龍等來貢 帝以貞當耿精忠叛亂之際 屢獻方物 恭順可嘉 賜敕褒諭 兼賜錦幣十五”

마지막으로 어필 하사에 관한 기록이 청측 사료에 다수 남아 있다. 즉 유구에 ‘中山世土’를, 안남에 ‘忠孝守邦’이라는 어필을 하사한 기록은 『淸聖祖實錄』을 비롯하여 『淸朝通典』, 『淸朝文獻通考』, 『欽定禮部則例』, 『大清會典』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에 반해 조선에 대한 어필 하사는 시기적으로 유구·안남에 비해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 또한 국왕 책봉이 아닌 왕비 책봉의 과정에서 어필이 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필 하사에 대한 기록이 청측 사료에 남아있지 않다.⁵⁸⁾

먼저 시기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도 말했듯이 어필 하사는 삼변의 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강희제의 발언과 달리 유구와 안남은 오삼계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청에 대한 입공을 중지하였다.⁵⁹⁾ 따라서 유구와 안남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라는 강희제의 언급은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어필 하사는 관계의 복구를 기념하는 도구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그에 반해 조선의 경우 삼변의 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지만 청에 대한 입공을 중지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어필 하사라는 기획을 통해 관계의 복구를 도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⁶⁰⁾

58) 강희제의 서법과 관련한 중국 측 선행연구들에서도 대부분 조선에 대한 어필 하사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청측 사료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孫衛國의 경우, 어필 하사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강희 연간 문자 정치 차원이 아닌 청 황제의 조선 국왕 우대 정책의 한 사례로 짧게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孫衛國, 2018, 『從「尊明」到「奉淸」: 朝鮮王朝對淸意識的嬗變(1627-1910)』,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92~193쪽).

59) 『淸聖祖實錄』 권83, 강희 18년 8월 28일 경인; 권86, 강희 18년 11월 21일 임자.

60) 이와 관련하여 대청제국 질서 내 조선의 위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은 입관 이전 정복을 통해 조선을 강제로 대청제국 질서로 편입시켰다. 그에 반해 유구·안남에 대해서는 입관 이후인 1647년(순치 4) 자발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淸世祖實錄』 권32, 순치 4년 6월 8일 정축). 청의 요구에 대해 1653년 유구(『淸世祖實錄』 권76, 순치 10년 윤6월 25일 무자), 1660년 안남(『淸世祖實錄』 권140, 순치 17년 9월 1일 계축)이 화답하면서 청은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명의 조공 질서를 상속 받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외교 관계에도 반영되는데, 조선과 유구·안남은 청 예부 관할의 조공국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신 인선, 조서 반포, 국왕의 지위 등에 있어 차별점이 확인된다(구범진, 2008, 앞의 논문; 김창수, 2013, 「청의 조서(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이재경, 2019,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등). 궁극적으로 1680년대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조선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독특한 지위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구·안남에 대한 어필 하사가 국왕 책봉과 맞물려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구·안남의 경우 삼번의 난 종식 시점과 새로운 국왕의 즉위가 겹쳐있었기 때문에 어필 하사라는 세리머니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숙종이 1674~172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국왕 책봉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희제가 왕비 책봉을 국왕 책봉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삼번의 난 종식 이후로부터 1703년 사이에는 세 차례의 왕비 책봉이 추가로 있었다. 즉, 1682년의 인현왕후, 1689년의 희빈장씨, 1694년의 인현왕후 복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1697년에는 훗날 경종이 되는 왕세자에 대한 책봉도 거행되었다. 따라서 왕비 책봉을 국왕 책봉의 대안으로 삼았다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어필 하사에 대한 기록이 청측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다. 규서는 강희제에게 어필을 직접 요청했을 만큼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조선국왕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며 조선 측에 특별한 의례를 요구하였다. 別謝禮를 둘러싼 갈등은 조선 측의 주장이 대체로 수용되었지만 규서는 개인적으로 하사받은 강희제의 어서 法帖까지 조선 측에 넘겨주며 강희제의 은전을 조선에 각인시키려 하였다.⁶¹⁾ 결국 조선에서는 사은 표문으로 어필 하사에 사례하였다.⁶²⁾

어필 하사로부터 조선의 사은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 정치적 사건이 청측 사료에 누락된 점은 의아하다. 어필 하사가 돌발적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사은을 한 이상 외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시야에서 놓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필 하사를 둘러싼 청측 정치 주체들의 입장이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필 하사 시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청에서는 열흘 정도 간격으로 연속해서 사절을 파견하였다. 하나는 강희제의 오순을 맞이하여 강소·절강성 등지를 시찰하고 천하에

61) 어필 편역과 법첩 수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김우진, 2020, 앞의 논문, 519~524쪽 참조.

62) 『同文彙考』 권37, 錫賚, 謝賜八大字表.

사면령을 내렸던 사절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인원왕후 책봉 사절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원왕후 책봉이 국왕 책봉의 대안이 아니었다면, 강희제의 어필 하사로 보다 적합한 사절은 전자였다. 즉, 제국의 안녕을 자찬하며 그 공로를 천하와 공유하고자 하였던 조서와 함께 번국의 충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어필을 하사하는 것이 보기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어필 하사는 인원왕후 책봉 사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어필 하사가 강희제의 통치 전략에 기반한 '기획된'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별한 계기는 앞서 규서가 스스로 밝힌 표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1680년대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선이 규서로 인해 어필 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규서는 왜 어필 하사라는 이벤트를 기획하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강희제의 서법을 활용한 통치 전략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만한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강희제는 한족 지식인뿐만 아니라 만주 기인들의 분발을 촉구할 때에도 서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컨대, 강희제는 규서의 사행 1년 전 이루어진 남순 중에 규서를 비롯한 한림원 학사들을 행궁에 불러 글자를 써서 올리게 한 후 서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大字를 써서 시범을 보이고 황자들에게도 글자를 써서 올리게 하였다.⁶³⁾ 즉, 강희제의 문자 정치의 대상 가운데에는 만주 기인 규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희제는 이듬해까지 이어진 남순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필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어필 하사의 대상은 수행원, 지방관, 사찰, 서원은 물론 평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⁶⁴⁾ 해당 남순에서 규서는 기거주관으로 강희제를 호종하였다. 강희제의 남순은 3월 15일에 마무리되었고, 규서의 조선 사행이 결정된 것은 2월 21일이므로 사신 인선은 남순 중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규서는 어필 하사의

63) 『康熙起居注』 강희 41년 10월 5일.

64) 남순 중 강희제의 서법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常建華, 2019, 앞의 논문, 156~158쪽 참조.

대상을 조선까지 확장시킬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⁶⁵⁾

그런데 이와 같은 추정은 어필 하사가 규서의 건의로 촉발된 돌발적 이벤트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703년의 어필 하사에 규서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해주는 것은 다른 아닌 옹정제이다. 1724년(옹정 2), 유구와 안남에서는 옹정제 등극에 하례하는 사절을 파견하였다. 옹정제는 사절을 환대하였을 뿐 아니라 유구에는 ‘輯瑞球陽’, 안남에는 ‘日南世祚’의 4글자를 새긴 어서 편액을 하사하였다.⁶⁶⁾ 당시 조선에서는 유구와 안남보다 한 발 앞서 1년 전에 이미 진하사를 파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어서 편액 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조선의 진하가 너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 막 즉위한 옹정제가 경황이 없기 때문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구와 안남에서 사신을 파견하기 이전까지 해당 진하사를 제외하고도 무려 4차례의 사절을 추가로 파견하였다.⁶⁷⁾ 따라서 옹정제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어필을 하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만약 1703년의 어필 하사가 없었다면 옹정제의 선택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애초에 조선은 어필 하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로 인해 옹정제의 선택은 해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옹정제와 규서의 관계이다. 규서는 강희제 생전 차기 황위 계승 문제에서 팔황자 允禩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황위에 오른 것은 사황자 胤禛, 즉 옹정제였다. 옹정제는 이 일에 대해 잊지 않았고, 1724년 10월 규서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규서의 묘비를 훼손시켰다.⁶⁸⁾

65) 물론 이러한 어필 하사가 규서 개인의 건의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다. 즉, 삼번의 난 직후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던 1690년대의 前史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1690년대 조·청 관계에 대해선 이명제, 2021, 앞의 논문, 278~286쪽 참조.

66) 『淸史稿』 권526, 列傳 313, 屬國 1, 琉球; 권527, 列傳 314, 屬國 2, 越南.

67) 1723년(옹정 1) 4월 3일 옹정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 이후로도 4월 26일 攔頭의 혁파를 요청하는 재자행, 8월 8일 황태후의 봉서에 대한 진위사, 10월 30일 강희제 尊諡에 대한 진하사, 1724년 3월 5일 강희제 配祀 및 황태후 尊諡에 대한 진하사를 파견하였다. 그에 비해 유구의 진하사는 1724년 3월, 안남의 진하사는 5월에야 비로소 도착했다(『淸世宗實錄』 권17, 옹정 2년 3월 13일 정해; 권20, 옹정 2년 5월 9일 신해).

68) 鈴木眞, 2021, 앞의 논문, 1쪽.

1703년의 어필 하사가 규서의 기획이었다면 1724년의 어필 하사 대상에서 조선이 제외된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즉 규서에 대한 사감을 가지고 있었던 옹정제 입장에서는 규서가 기획한 전례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옹정제가 의도적으로 전례를 지워내고자 했다면 1703년의 어필 하사가 청측 사료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 결국 옹정 연간 다시금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이 다시금 청 황제의 어필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건륭 연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V. 나가며

1706년(강희 45), 강희제는 대학사들에게 유시를 내려 조선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조선 국왕을 보건대 매사에 공경하고 삼가며 그 나라 사람들 역시 모두 청조의 통치를 감격하여 받들고 있다. … 태종문황제께서 조선을 평정하신 전쟁 당시 우리의 병사는 조선 전역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미 파괴된 국가를 위해 우리 조정이 거둬 營建을 실시하여 예전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태종문황제가 주둔한 곳에 그 나라 石碑를 세워 갱생시켜 준 덕에 대해 갖추어 적고 누대에 걸쳐 감격하여 받든 것이 오늘 날까지 이르렀다. 또 저들에게서 취할 것이 또 있으니 명나라 말엽 저들이 시종일관 배신하지 않았으니 예의를 중히 여기는 국가라 할 만하다.⁶⁹⁾

강희제는 병자호란 당시 승덕제가 갱생시켜준 일에 대해 조선이 감격하여 받

69) 『淸聖祖實錄』 권227, 강희 45년 10월 23일 정미, “觀朝鮮國王 凡事極其敬慎 其國人亦皆感戴 … 太宗文皇帝定朝鮮之役 我兵無處不到 以已破之國 我朝為之重加營建 俾安堵如故 是以其國人於太宗文皇帝駐軍之地 樹立石碑 備書更生之德 累世感戴以至於今 且彼更有可取者 明之末年 彼始終未嘗叛之 猶為重禮義之邦也”

들고 있음을 지적한 뒤,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충정 역시 ‘예의지방’의 면모로 재평가하였다. 강희제의 평가는 3년 전 규서가 ‘太宗文皇帝功德碑’를 보고 지은 시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규서와 강희제에게 조선은 ‘예의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조에 대해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당연히 이러한 관계는 청조의 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불과 20년 전 청에서 “조선의 국왕은 ‘昏懦’하고 신하들은 ‘恣肆’하여 예의를 버리고 은혜를 잇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했다는 사실이다.⁷⁰⁾ 즉, 1706년의 평가는 강희제의 발언처럼 누대에 걸쳐 형성되었다기보다 지난 20년 사이 급변한 조·청 관계를, 혹은 청의 위정자들이 그리는 조·청 관계의 상을 반영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703년 규서의 사행은 그러한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규서는 가문의 신분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한족 문인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다. 곧이어 규서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렌즈를 활용하여 조·청 관계를 조망하였다. 규서의 시도는 ‘삼변의 난’ 이후 제국의 일부 영역에서 어서를 활용하며 유교적 군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 강희제의 통치 전략과 닮아 있었다. 규서는 이를 놓치지 않고 ‘어필 하사’의 대상을 조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703년의 어필 하사가 규서의 기획이었기 때문에 옹정 연간 조선은 다시 어필 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70) 『同文彙考』原編 권51, 犯越 3 我國人, 禮部知會呈文陪臣免職拿發與該國治罪咨.

【부록】

『益戒堂詩集』 권8 소재 조선 사행 관련 시문의 주요 내용

*음영표시는 조선 경내 작품

	제목	주요내용	비고
1	奉使朝鮮初出都	청 황제의 교화가 제후국 조선에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동시에 사신 임무에 대한 개인적 각오를 밝힘	조선을 箕子와 檀君의 후예로 묘사/2수
2	通州遇雨	통주에 도착하여 심정을 술회	
3	望盤山	盤山을 바라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	
4	恭謁孝陵十二韻	孝陵에 배알하고 순치제의 공적을 치하	
5	端午日永平作	단오를 맞이하여 伯夷·叔齊와 屈原의 덕을 찬양	
6	出山海關	산해관에서 청의 태평성대를 선포	조선의 군주를 朱蒙으로 표현
7	中前所古佛寺芍藥	古佛寺에서 작약을 보고 느낀 감정을 술회	2수
8	寧遠州浴溫泉	寧遠에서 온천을 하고 느낀 상쾌함을 표현	
9	自高臺堡抵十三山道中作	戰場을 둘러보며 천하가 안정되었음을 칭송	
10	廣寧道中望醫巫閭	醫巫閭山을 보고 느낀 감정을 술회	
11	恭謁福陵昭陵作	福陵과 昭陵을 배알하고 누르하치와 승덕제 홍타이지의 공적을 치하	
12	太子河觀打魚歌	太子河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술회	
13	渡太子河	태자하의 연혁과 水源을 고증	
14	過摩天嶺	戰場에서 朝貢路로 바뀐 마천령을 바라보며 심정을 술회	
15	金家溝阻水	金家溝에서 물길로 일정이 지체됨을 한탄	
16	鳳凰城	鳳凰城에서 聖朝에 의해 戰禍가 멈추고 태평성대가 열렸음을 찬양	조선을 三韓으로 표현
17	過鴨綠江至義州	조선 경내에서 詔使를 맞이하는 조선 영접사 일행의 절도를 칭찬함과 동시에 겸약한 태도로 사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표현	의주를 隋唐과 고구려의 격전지로 묘사

18	詠宣川林畔館松棚	宣川 관사에서 더위를 피하며 느끼는 감정을 술회	조선을 기자의 강역으로 묘사
19	定州阻雨偶成	定州에서 밤비를 보며 느낀 감정을 술회	
20	過納清亭偶題	嘉山 納清亭에서 맞이한 쾌청한 날씨를 표현	
21	登平壤大同館後山快哉亭	平壤 快哉亭에서 느낀 감정을 술회	동명성왕의 麒麟馬 전설을 인용
22	快哉亭用高同知練光亭韻	동지중추부사 高씨가 지은 「연광정」의 운을 이용하여 쾌재정을 노래	
23	登黃州太虛樓	黃州 太虛樓에서 느낀 감정을 술회	
24	朝鮮烹茶	조선의 차 맛을 칭찬	3수
25	雨中過蔥秀山	蔥秀山の 승경을 칭찬	
26	開城懷古	개성에서 고려의 역사를 술회	王建이 長白山 布衣로 일어났으며 恭愍王이 辛旽의 아들 禑를 후사로 삼았다고 묘사
27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三田渡碑를 살펴보고 청태종의 은혜를 부각함과 동시에 제후국 조선의 공순함을 칭찬	
28	聞蟬	매미소리를 들으며 귀로를 기대함	
29	寄懷松坪	1678년 조선에 사행하였던 松坪 孫致彌에 대한 소회를 표현	조선을 扶餘國으로 표현
30	讀秋筵集有感即效吳夫子體	吳兆騫의 『秋筵集』을 읽고 감회에 젖어 시문을 남김	
31	閱輪菴禪師松漠蟬吟感賦	輪菴禪師 超揆의 松漠蟬吟을 읽고 감회에 젖어 시문을 남김	조선을 新羅로 표현
32	寄懷東江一百韻	東江 唐孫華에 대한 소회를 100운에 걸쳐 표현	조선을 주몽의 나라, 신라, 고려 등으로 표현
33	高麗紙	조선의 종이를 칭찬	
34	涼簟	폭염 속에 대자리의 서늘함을 술회	
35	高麗扇	조선의 부채를 칭찬	
36	朝鮮諸君子有詩見贈予未暇徧和 賦二絕句謝之	조선에서 맺은 神交에 보답하고 조선 문인의 문장을 칭찬	2수
37	立秋日平壤作	평양에서 계절이 바뀌었음을 묘사	
38	憶曩歲隨駕北巡 每日得敬觀御書 今夏於役朝鮮 未得扈從 寸心馳戀 情見乎辭	사행을 떠나와 강희제의 北巡을 호종할 수 없는 심정에 대해 술회	

39	謁箕子墓	기자묘를 배알하고 중화의 유풍이 조선에 전해짐을 칭찬	
40	肅川肅寧館觀荷花	杜甫와 潘岳의 시를 인용하여 연꽃에 대한 감정을 술회	
41	連年長夏 皆駐塞垣 不見芙蓉 已經三載 今者星輶遠邁 歸洺肅川 秋氣已迎 池荷競放 感懷思舊 慨然有作	肅川에서 연꽃을 보고 감정을 술회	
42	登安州百祥樓	安州 百祥樓에서 감정을 술회	안주를 수나라와 고구려의 격전지로 묘사
43	歸渡義州江述朝鮮人語	詔使를 배웅하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칭찬하고 조선의 대기근을 구제한 강희제의 은혜를 다시 상기	
44	金石山夜宿行幕聽雨作	변경의 추위를 묘사	
45	七夕鳳凰山下作	귀로에서 맞이하는 명절에 대한 감정을 수로히	
46	遼陽州中元夜對月	遼陽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정을 술회	
47	食香水梨	香水梨의 맛을 표현	
48	月夜遊永安寺	永安寺에서 감정을 술회	
49	遼左田家行	蘇東坡의 시를 인용하여 농가의 풍경을 묘사	
50	登海樓	海樓에 올라 감정을 술회	
51	薊州見桂花	여전히 귀로가 많이 남았음을 한탄	
52	別金譯使	강희제가 松漠에 행행하여 규서 역시 행궁으로 복명해야 하기에 三河驛에서 大通官 金士傑과 이별하며 감사함을 표현	
53	過丫髻山	야계산의 승경을 즐기고 싶지만 사신 일정이 지체되니 떠날 수밖에 없음을 술회	
54	問道赴行在作	강희제에 복명을 마치고 사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감정을 술회	2수
55	塞外中秋對月	새외에서 중추절을 보내는 심정을 술회	조선을 辰韓으로 표현
56	次和他山夫子見示之作	查慎行과 사행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창화	조선을 高麗로 표현

참고문헌

1. 사료

- 『益戒堂詩集』, 『揆叙墓志銘』, 『敬業堂詩集』
『明史』, 『清史稿』, 『清聖祖實錄』, 『清世宗實錄』, 『(雍正)廣西通志』, 『清朝文獻通考』, 『康熙起居注』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同文彙考』, 『通文館志』
『葛菴集』

2. 논저

- 구범진, 2008, 「清的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인문논총』 59
김우진, 2020, 「1703년 康熙帝의 御筆을 둘러싼 조선의 정치적 파장과 숙종의 대응」, 『韓國實學研究』 40
김창수, 2013, 「청의 조서(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유기수, 2000, 「納蘭性德의 生涯 研究」, 『中國人文科學』 20
유소맹,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이명제, 2019, 「강희 연간 淸使의 사행 기록과 조선 인식의 양상—揆叙와 阿克敦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8
이명제, 2021,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제, 2023, 「조선 후기 기자의 위상 변화와 조·청 외교에서의 활용 양상」, 『국학연구』 51
이재경, 2019,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이지희, 2001, 「納蘭性德 愛情詞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생화, 2019, 『17세기 淸의 지식인 ‘조선문화’를 만나다』, 경인문화사
첸제셴, 홍순도 역, 2015, 『누르하치—청 제국의 건설자』, 돌베개
최진열,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唐代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鄧偉, 1991, 「論納蘭揆叙詩」, 『承德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1(04)
傅湘龍, 2017, 「納蘭揆叙編刊《歷朝閏雅》述考」, 『民族文學研究』 35
成積春, 2006, 「書法背後的統治藝術—康熙書法的政治涵義詮釋」, 『內蒙古大學藝術學院學報』

3-1

- 嚴佳, 2013, 「順康雍時期的八旗詩人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敏, 2022, 「滿族藏書家納蘭揆叙及其謙牧堂考述」, 『河北科技圖苑』 35-4
- 陳煒欣, 2013, 「清康熙朝的明珠黨」,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常建華, 2017, 「共賞與建構: 康熙帝的御賜書法活動」, 『文史哲』 361
- 常建華, 2019, 「康熙南巡中的書法活動」, 『學術界』 257
- 常建華, 2020, 「認同與建構: 西安碑林中的康熙書法」, 『江海學刊』 2020-06
- 常建華, 2021, 「康熙帝書法研究綜述」, 『瀋陽故宮學刊』 24
- 孫衛國, 2018, 『從「尊明」到「奉清」: 朝鮮王朝對清意識的嬗變(1627-1910)』,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 永莉娜, 2019, 「明珠家族佐領承襲初探—以明珠二世孫瞻岱滿文奏摺為中心的考察」,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6-4
- 張萬興, 2012, 「從起居注看康熙帝頒賜御書的政治功用」, 『歷史檔案』 2012-2
- 鈴木眞, 2007, 「康熙朝における近臣たち—「内務府系氏族」について」, 『社會文化史學』 49
- 鈴木眞, 2021, 「康熙帝と揆叙」, 『社會文化史學』 64
- 磯部淳史, 2016, 「順治帝親政期における側近機構の一考察—内三院・内閣、十三衙門を中心に」, 『清初皇帝政治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투고일: 2023년 09월 05일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24일

■ Abstract ■

Calligraphy and Diplomacy

: Kui Sioi's Reframing of Joseon-Qing Relations in the 42nd Year of
Emperor Kangxi's Reign

Lee, Myung-j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iplomatic mission of Kui Sioi during the the forty-second year of Emperor Kangxi's prolific reign of China, analyzing its significance in momentarily reconfiguring Joseon-Qing relations. In his diplomatic efforts, Kui Sioi used his deep understanding of Chinese scholarly traditions and leveraged networks within influential circles, such as the Mingju family of the Kangxi court and the elite strata of Han Chinese literati. His presentation of the emperor's calligraphy as a strategic act, crafted as a nuanced but effective expression of cultural diplomacy.

The study reveals how this mission, imbued with Kui Sioi's strategic use of Confucian rhetoric, effectively served as a means of temporarily incorporate Joseon into the broader cultural realm, marking a departure from the exclusionary policies that had been practiced since the Qing invasion of 1637. However, Kui Sioi's efforts proved to be fleeting, as the subsequent Yongzheng reign resumed the exclusion of Joseon from this shared cultural sphere.

In essence, this paper highlights the intricate interplay between culture and philosophy while revealing the complexities emblematic of Joseon-Qing political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illustrating the role of culture and rhetorical strategies in diplomatic engagements.

Key words: Kui sioi, Mingju, Emperor Kangxi, *Poetical Works of Yijietang*, Emperor Kangxi's Calligraphy